“권력의 모든 권위에 저항하다” … 파리 지성의 본향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12〉 파리와 대학

소르본느 대학 전경과 소르본느 광장의 모습. 68혁명 이후 단행된 대학 제도 개혁에 따라 지금은 파리 4대학이 들어서 있다.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오귀스트, 1215년 파리대학 출범
왕정 운영 간섭에 대학 반발 파업
2년 싸움 끝 교황, 학교 독립 인정
‘68혁명’뒤 13개 종합대로 재편

중세시대, 배움에 목마른 이들이 모여들었던 모베르 광장.

5·18 광주민중항쟁의 시작을 알린 사건은 5월18일 발생했다. 계엄군이 대학을 장악하자 전남대 학생들이 이날 시위를 벌여 계엄군과 충돌한 것이다. 이들은 학교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고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합세했다. 전남대 학생들이 서슬 푸르던 독재 시절 총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배움에서 비롯된 신념과 패기였을 것이다. 혁명의 도화선에 종종 대학생이 있어왔다는 것은 광주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4·19 혁명의 ‘그날’에도, 대학생들은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정치혁명보다 더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는 사회문화혁명, 1968년 5월 혁명이 파리의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특별할 게 없다. 이들은 “금지를 금지하라”는 구호처럼 가정을 포함한 사회 내의 모든 권위주의와 부조리를 없애고, 극단적 평등주의,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다. 소르본느 대학이 있는 라틴 구역은 혁명 기간 동안 최루탄 연기와 바리케이드로 덮였다. 혁명의 물결은 전 유럽을 거쳐 미국에까지 건너가 영향을 미쳤다. 68 혁명의 단초는 미국이 명분 없이 벌인 베트남 전쟁이었지만, 불을 당긴 것은 파리의 대학생들이었다.

장발의 20세기 대학생들이 떼를 지어 행진했을 라틴 구역의 어딘가에서 약 1000년 전 파리의 대학이 태동했다. 센느 강과 평행으로 나 있는 생 제르맹 대로의 동쪽에 모베르 광장(Place Maubert)은 19세기 제2제정 때 실시된 도시 정비 이전에는 아주 협소한 장소였다. 분수가 놓여있긴 했지만 광장으로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삼각형 공간이었다. 이곳으로 배움에 목마른 중세 파리지앵들이 모여들었다.

‘모베르’는 알베르 교수(Maitre Albert)에서 온 조어인데,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독일인 교수이던 알베르가 교회의 간섭을 피하고자 노트르담 성당을 벗어나 학당을 차린 곳이 이 광장이다. 볏짚을 바닥에 깔고 알베르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 중에는 후에 불후의 명작 ‘신곡’을 쓴 피렌체 젊은이 단테도 있었다. 광장에서 센느 강 쪽으로 5분 정도 걸으면 12세기 지어진 성당(생-쥘리앙-르-포브르)이 하나 나온다. 이곳은 파리 대학의 학장이 머물던 본부로 쓰였다.

12세기를 전후해 파리의 교육기관들은 교회의 영향권에 있었다. 신학은 물론이고, 산술, 기하, 천문, 음악, 문법, 수학, 논리학 등이 주요 과목이었다. 알베르 교수와 같은 수도회 소속 교수들조차 교회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교회의 학교 운영방식은 독단적이었다. 지금의 라틴 구역을 중심으로 단과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자 국왕 필립 오귀스트는 이들 교육기관의 통합을 시도했다. 1215년 파리 대학이 출범했다.

볼로냐(1088년), 옥스포드(1167년), 캠브리지(1209년) 등 다른 유럽의 대학보다 늦게 생겼지만 당시 파리 대학의 인기는 프랑스를 넘어선 것이었다. 13세기 파리 단과대학은 75곳에 달했고, 노르망디, 브르타뉴를 비롯한 파리 지방은 물론 독일, 플랑드르, 시칠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모인 4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구열을 불태웠다. 대학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전보다 줄어든 대신 왕정이 대학 운영에 깊숙하게 간여했다. 세계 최초의 시위라 불릴만한 사건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대학생들은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회의 파면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패악질이 잦아들지 않아 일반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1229년 2월 사순절 직전의 축제 마지막 날 대학생들은 번화가인 생 마르팅 구역의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는 학생과 주민 간 패싸움으로 번졌는데, 술에 취한 학생들이 주민들에게 호되게 당했다. 이튿날 복수에 나선 학생들은 해당 술집은 물론 인근의 가게들을 때려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사건은 왕가에까지 보고되기에 이르렀다. 어린 루이 9세를 대신해 섭정 중이었던 왕비 블랑슈 드 카스티유는 무장한 기사들을 보내 학생들을 벌하라 명했다. 그러나 기사들은 대학가에 등장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대학 당국은 자신들의 권위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파업’이었다. ‘파업’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다.

학생과 교수들은 파리를 떠나 앙제, 오를레앙, 툴루즈, 푸아티에 등 프랑스 지방 도시로 옮겨 공부를 지속했다. 대학은 그들의 특권과 독립을 위해 버텼고, 왕정은 권위로 맞섰다. 얼마 후 파리의 대학은 텅텅 비었다. 신학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파리 대학의 파업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컸다. 결국 교회가 중재에 나섰다.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왕비를 설득했고, 루이 9세도 교황의 편에 서서 어머니에 압력을 넣었다. 2년에 걸친 기싸움의 승자는 대학과 학생들이었다.

왕비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배상을 약속했고, 교황은 파리 외 도시에서 공부를 지속했던 학생들에 대한 학위를 인정하기로 하는 대신 즉각 파리 대학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교황은 칙서를 내려 파리 대학의 법적 독립을 보장하기로 했다. 칙서는 학생이 살해됐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학생들이 공부를 거부할 수 있는, 즉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기도 했다.

루이 9세의 치세에는 대학의 독립이 더욱 가속화됐다. 교육청이 기존의 성당에서 세속기관인 소르본느 대학으로 옮겨진 것이다. 소르본느 대학은 루이 9세의 개인 교수였던 신학자, 로베르 드 소르봉(Robert de Sorbon)이 1257년 설립했다. 이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권위를 얻은 이유는 소르봉이 진정한 교육자로 이름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 설립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인의 수도원에 가입시키는 등 ‘사심’을 종종 드러냈다. 학생들끼리 논쟁이 붙기라도 하면 항상 이기는 쪽은 논리로 무장한 소르본느 학생이었다. 이미 이때부터 파리지앵들에게 ‘소르본느’라는 단어는 ‘대학’과 동격으로 인식됐다.

신학의 대명사였던 소르본느도 인문주의가 대두되면서 명성이 추락했다. 급기야 15세기에는 교회로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했다. 진보적이라 여겼던 소르본느는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의 부속 대학 쯤으로 인식됐다. 왕권과 교회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능했던 일이다. 17세기 리슐리외 추기경이 지은 교회당은 지금도 남아있다. 이 성당 안에는 리슐리외 추기경의 무덤이 안장돼 있다. 대혁명 때는 학교가 폐쇄되고, 리슐리외가 지은 교회당 이름이 ‘이성의 여신 사원’으로 바뀌기도 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는 파리의 대학에도 적용된다. 68 혁명의 선봉에 선 것은 대학과 정부의 권위에 맞선 소르본느 학생들이었다. 68 혁명의 결과로 정부는 대학 개혁을 단행했고, 파리 대학은 13개의 종합대학으로 나뉘었다. 소르본느 대학은 파리 1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등으로 다시 태어났다. 크고 작은 시위와 파업이 끊이지 않는 현대의 파리에서도 정부가 가장 긴장할 때는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피들이 교실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이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홍스페이스 모던가구 & 이태리가구 모던가구 런칭 30% 특별가 판매, 혼수가구 환영!

홍 SPACE 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1899-0240
www.hong79.com(홍친구닷컴) NAVER 홍스페이스 검색